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③ 03. ② 04. ⑤ 05. ④ 06. ② 07. ④ 08. ③ 09. ④ 10. ②  
 11. ⑤ 12. ② 13. ④ 14. ① 15. ③ 16. ⑤ 17. ⑤ 18. ④ 19. ① 20. ⑤  
 21. ② 22. ⑤ 23. ③ 24. ④ 25. ② 26. ③ 27. ③ 28. ① 29. ④ 30. ④  
 31. ⑤ 32. ④ 33. ⑤ 34. ② 35. ⑤ 36. ⑤ 37. ① 38. ② 39. ③ 40. ②  
 41. ③ 42. ① 43. ② 44. ① 45. ③ 46. ① 47. ① 48. ⑤ 49. ④ 50. ①

## [1-5] 듣기

## 1.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단어로 알아보는 삶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는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 어인 ‘크리네인(krinein)’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본 것인데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합니다. 동양인들은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죠.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서양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진행자는 ‘위기’란 단어에 대한 서양인과 동양인의 인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영어 ‘crisis’는 그리스어의 ‘분리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한자어 ‘위기(危機)’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로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서양의 지혜’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나,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에서 ‘여유’를 이끌어낼 수 없다. ②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과 중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요한 일을 해결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 ③ 타인의 충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고 했을 뿐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 2.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다음 주에 동아리 발표회가 있잖아. 우리 동아리가 발표할 내용을 그림판으로 만들어 봤어. 이건 초안이니까 같이 보고, 고칠 내용을 찾아보자.

남학생 : 알았어. 발표 제목을 ‘우리 주변의 자생 식물’로 했네. 발표 내용에 비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우리는 떡갈나무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소개하기로 했으니까 제목은 ‘떡갈나무 식별법’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친구들이 떡갈나무에 대해 잘 모를 테니까 떡갈나무의 수종을 먼저 알려 줘야 할 것 같아. 나도 떡갈나무가 참나뭇과에 속하는지 몰랐거든.

여학생 : 좋아. 떡갈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넣자는 말이구나. 그런 다음 떡갈나무 식별법을 알려 주잔 말이지?

남학생 : 그래 맞아. 떡갈나무는 잎의 모양과 도토리 집의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떡갈나무의 잎과 도토리 집의 모양을 알 수 있게 그림을 넣은 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떡갈나무를 식별할 때에는 잎 모양이 도토리 집 모양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림에도 잎이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 그림 밑에 있는 도토리 집 모양과 잎 모양에 관한 정보의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여학생 : 그거 좋겠다. 그리고 뭔가 흥미를 끌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좋은 생각 없니?

남학생 : 글썄……, 발표 중에 퀴즈를 내서 집중력을 높이면 어때? 잎을 설명한 다음, 도토리 집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맞춰 보게 하자. 그러려면 그림판에서 도토리 집 모양의 이름을 가려 놓아야겠어.

### 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남학생은 그의 첫 번째 발언에서 떡갈나무가 참나뭇과에 속하는지를 몰랐던 자신의 경험을 들며 친구들에게 떡갈나무의 수종을 먼저 알려 주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다른 참나무의 잎과 도토리 집 그림을 추가하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다.

####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남학생은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발표 내용에 비해 범위가 너무 넓으니 제목을 ‘떡갈나무 식별법’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한다. ② 남학생은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떡갈나무의 수종을 먼저 알려 주자고 제안하고, 여학생은 이를 떡갈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넣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남학생은 자신의 두 번째 발언에서 떡갈나무 잎 모양보다 도토리 집 모양이 더 중요하므로 잎 모양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시하자고 제안한다. ⑤ 남학생은 자신의 마지막 발언에서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도토리 집 모양의 이름을 가리고 퀴즈를 내자고 제안하고 있다.

## 3. 이번에는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학 단신입니다. 최근,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물 전달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칩 위의 약국’, 또는 ‘휴대용 약국’이라 불리는 이 장치는, 이름 그대로 컴퓨터 칩 위에, 약국에서처럼 여러 종류의 약물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약물이 몸 안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칩 위의 약국’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기로 약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것과 달리, 약물이 전달되는 시간과 양이 미리 프로그램된 칩을 환자의 몸 안에 심어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자의 말에 의하면, ‘칩 위의 약국’은 장기간에 걸쳐 적절한 양의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환자의 몸에 전달하기 때문에 투약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칩 위의 약국’을 몸에 지닌 환자들은 약물이 프로그램된 대로 정확하게 투여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자는 또, 이 시스템이 각종 질병 치료에 응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신호를 보내 약물이 방출되는 정확한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3.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뉴스의 첫 부분에서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물 전달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스템이 각종 질병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칩 위의 약국’은 처방된 약을 투입하는 역할만 할 뿐, 병을 진단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②는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뉴스의 첫머리에서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물 전달 장치가 개발되었는데 이를 ‘칩 위의 약국’, 또는 ‘휴대용 약국’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칩 위의 약국’은 질병 치료와 관련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③ 개발자의 말을 인용해 ‘칩 위의 약국’은 장기간에 걸쳐 적당량의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환자의 몸에 전달하기 때문에 투약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④ 프로그램된 대로 정확하게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 시간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⑤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신호를 보내 약물이 방출되는 정확한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4~5] 이번에는 수업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시요.

교사(여) :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인터뷰 자료를 하나 들려 줄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효과음)

연구원(남) :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을 조사했는데요,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들이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관계 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세 영역의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관리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관계 지향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능력을 묻는 ‘사회적 협력’ 점수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지식을 중시한 ‘갈등 관리’ 영역은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나 이해력은 뛰어나지만 실제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와 실천력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효과음)

교사(여) :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소리가 한번 말해 볼래요?

학생(여) : 지식은 뛰어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에 동의해요. 실제로 공부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힘들어요.

학생(남) : 우리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는 동의하기 힘들습니다. 봉사 활동이다 뭐다 해서, 매주 체험 활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생(여) : 하지만 봉사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머리로만 아는데 몸으로 실천할 여유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보다 우리들은 나부터 먼저, 주변을 돌아보고 배운 지식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어요.

## 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결과 해석은 인터뷰의 끝 부분에 나타난다. 인터뷰에서 남자 연구원은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은 낮고, ‘갈등 관리’는 높은 조사 결과를 두고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나 이해력은 뛰어나지만 실제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와 실천력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여학생은 연구원의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은 뛰어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⑤는 ‘공동체 의식은 높지만 실천력은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부족'이라고 메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인터뷰 첫머리에 나타난다. ②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직접 밝히고 있으며, '관계 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점수를 분석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③ 공동체와 관련된 '관계 지향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협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④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지식을 증시한 '갈등 관리' 영역은 높게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 5. 비판적 사고(반응의 평가)

정답해설 : 여학생은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은 뛰어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남학생이 반박하자 두 번째 발언에서는 봉사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학생의 예를 들고 그 원인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할 여유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현상을 들고 있다. 이어서 학교나 지역 사회, 청소년 스스로가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학생은 인터뷰 내용에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도 조사 목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② 인터뷰 내용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쪽은 남학생이다. ③ 새로운 관점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인터뷰에서 제시된 조사 결과와 조사 방법을 수용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다.

### [6-12] 쓰기, 어휘 · 어법

####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탁구 대회 우승 비결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토론 대회 준비'에 관한 글의 내용을 연상해 내는 문제이다. 인터뷰 내용 가운데, 까다로운 강팀들의 전력을 분석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실력이 우수한 토론 팀들의 전력을 분석한다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같이 약체로 판단되는 상대 팀의 전력을 철저히 분석한다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적절한 연상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속공을 잘하는 선수와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만나 찰떡궁합을 이루었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서로의 장점이 만나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 팀을 꾸린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③ 강팀의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공략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상대 팀의 ~ 허점을 찾아내고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④ 연습 경기를 통하여 작전을 검증하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모의 토론을 통해 ~ 실전 대응력을 키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운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⑤ 감독님의 지적에 따라 연습 경기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집중 보완했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모의 토론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에 주력한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 7. 비판적 사고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제시된 자료의 의미를 주제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글쓰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④에서는 (가)와 (다)를 활용하여 '성별 격차를 ~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가)에는 성별 고용의 실태만 제시되어 있고 (다)에서 언급한 정책에는 사회적 편견에 관한 것이 빠져 있어 (가)와 (다)는 그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나)에서 여성 취업 장애의 요인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고 있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 아니라 '육아 부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자료에서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의 고용률보다 크게 높고 최근 20년간 그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나)에 여성 취업 장애 요인이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 여건'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글에서 활용할 때 '가정, 사회, 직장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③ (다)의 자료에 선진국에서 여성들이 직장가 가정의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나)에서 '육아 부담'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고, (다)에서 정부의 '보육 서비스' 정책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 8.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보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개요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IV-1에 제시된 방안(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고려한다면, ㉠의 자리에는 기존의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시간 확대'는 문제점에 해당하지도 않고, IV-1에서 제시된 방안과 어울리는 문제점으로 보기도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청소년기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은 주제('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라는 주제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② 상위 항목(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방과 후 활동의 참여도'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도'로 고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④ III-3('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비용 부담 과중')을 고려하여 IV('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방안')의 하위 항목을 추가할 때,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교과 내용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의 내용은 주제('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III-2('방과 후 문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부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학생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수정하자는 방안은 적절하다.

### 9. 비판적 사고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㉞의 말줄임표 자리에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생략된 내용을 넣는다면, 빛 공해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빛 공해의 심각성을 다루는 앞 문장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사진작가의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라는 내용을 말줄임표 자리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진전을 다녀온 의도와 감상 내용을 고려한다면 ‘사진전’을 ‘빛 공해 사진전’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② ‘결맞다’는 ‘두 편이 잘 어울리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며,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현재의 뜻을 담고 있는 ‘-는’을 결합시킬 수 없다(예 : 좋는(×), 착하는(×), 아름답는(×)). ③ ㉞의 앞 문장에서는 빛 공해를 정의하고 ㉞에서는 빛 공해의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㉞의 앞 문장과 ㉞은 연결하여 한 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제기하다(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는 문맥(표어를~)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㉞의 자리에 ‘제출하다(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내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0. 창의적 사고(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②의 표어는 ‘당신이 불을 끄면’으로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한숨 쉬는 나무들’, ‘미소 짓는 나무들’과 같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면 ~나무들, ~면 ~나무들’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③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표현이 대구를 이루고 있지도 않다. ④ 빛 공해 줄이기와 무관한 내용의 표어이다. ⑤ 빛 공해의 문제점만 제시되어 있을 뿐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 11. 어휘·어법 (완곡어법의 표현)

**정답해설 :** ⑤의 ‘주다’는 ‘~에/에게 ~을 주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지혜에게’는 문장 구조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며, ‘빌리다’는 ‘~에서/에게서 ~을 빌리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친구에게’도 필수적 부사어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비슷하다’는 ‘~과 비슷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이것과’는 필수적 부사어이나, ‘보다’는 ‘~을/를 보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② ‘이탈하다’는 ‘~에서 이탈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궤도에서’는 필수적 부사어이나, ‘만나다’는 ‘~을/를 만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③ ‘잡다’는 ‘~을/를 잡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몽둥이로’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며, ‘삼다’는 ‘~을 ~으로 삼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사위로’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④ ‘적합하다’는 ‘~에/에게 적합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벼농사에'는 필수적 부사어이며, '방문하다'는 '(어떤 사람이 나 장소)에 방문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오후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 12. 어휘·어법 (파생어 형성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 '덧대다'의 뜻은 '대어 놓은 것 위에 겹쳐 대다.'이며, '덧-'의 의미는 '겹쳐'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치뜨다(눈을 위쪽으로 뜨다)'의 '치-'는 '위로'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③ '들끓다(한곳에 여럿이 많이 모여 수선스럽게 움직이다)'의 '들-'은 '마구', '몹시'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④ '되감다(도로 감거나 다시 감다.)'의 '되-'는 '도로', '다시'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⑤ '휘젓다(골고루 섞이도록 마구 젓다)'의 '휘-'는 '마구'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 [13-18] 시가 복합

#### (가) 한용운, 「알 수 없어요」

**지문해설 :** 이 시는 모두 6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통해 '누구'가 그 배후에 있음을 표현하고, 이 모든 자연 현상을 만들어낸 존재(진리)를 향한 구도 정신을 차분한 목소리로 읊고 있다. 1행부터 5행까지는 이러한 자연현상과 그 현상을 보면 생각나게 되는 '누구'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 반복되어 드러나면서 진리를 향한 화자의 끝없는 관심과 의문이 드러난다.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도 '누구'의 발자취이고,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자연현상을 보며 생각에 잠기던 화자는 6연에 이르러 이러한 절대자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약한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진리를 향한 구도 정신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진리의 궁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구도 정신

#### (나) 장석남, 「배를 매며」

**지문해설 :** 이 시의 화자는 갑자기 다가온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사랑이라는 경험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뱃줄이 날아와서 그 뱃줄을 잡아다 배를 맨 경험과 비슷하다. 2연에서는 배를 매는 경험과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비슷한지를 보여 준다. 사랑이란 '뉘 놓고 앉았다가', '어찌 할 수 없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연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바다 위에 구름, 빛,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4연, 5연에서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지듯, 사랑도 그런 것에 다름 아님을 깨닫게 되며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다. 결국 이 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이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본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다) 정철, 「사미인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이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 우거(寓居)할 때 지은 가사 작품으로 송강의 대표작이다. 우리말 구사가 뛰어나며 표현이 세련되어 가사 문학의 수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임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연군지사’의 하나로서,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한 여인이 사랑하는 임과 헤어져서 그리워하는 마음에 빗대어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의 시상 전개는 춘, 하, 추, 동 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점점 깊어 가는 화자의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제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 임에 대한 알뜰한 정성, 임의 선정(善政)에 대한 갈망, 임에 대한 염려와 고독함 등의 내용이 차례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연군의 정)

13.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에는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등의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데 이 소재들은 모두 절대자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뜻한다. (나)에서는 배와 그 배가 던지는 밧줄, 이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 등이 사랑을 키우는 과정 및 사랑의 속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에서는 매화, 옷, 청광, 양춘 등이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적인 속성이 부여하고 있으나, 자연물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② (가), (나)에는 대화체가 드러나지 않고, (다)에서는 매화에 말을 건넨 부분이 대화체에 해당한다. 독백체는 (가)의 뒷부분과 (다)의 일부에만 나타나지만, (다)에서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색채어를 통해 시의 분위기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은 (다)이다. ‘백옥함’, ‘청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에는 ‘검은 구름’, ‘푸른 하늘’과 같이 색채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하지는 않는다. (나)에는 색채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가 구사되어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특성은 (나)에서만 나타난다. (나)의 ‘털썩’이 이에 해당한다. (가)에는 ‘구비구비’가 나타나지만 이것이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 14. 추론적 사고(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가)의 가장 큰 표현상의 특징은 유사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런 표현은 다양한 자연현상 어디서나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③ (나)에는 뚜렷한 시상 전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가)의 경우는 1~5행은 임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6행은 이러한 임(진리)을 향한 구도 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상이 바뀌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자연현상을 가져와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나, (가)의 경우 자연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의 경우 사랑을 자연과 관련해 빗댄 것이지 상황과 자연현상의 '대비'로 볼 수는 없다. ⑤ (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

## 15.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한용운의 시를 '절대자'의 존재를 탐구하며 구도자로서 자기를 정립, 극복하는 시라고 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해당 시 구절을 이해하도록 한다. ③의 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로 마무리되며 절대자의 숨결로 느껴지고 있으므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㉑ '누구의 발자취'는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㉒ '무서운 검은 구름'은 '푸른 하늘'과 대조적이며,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푸른 하늘'을 가리고 있으므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④ ㉓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는 '저녁놀'의 모습으로,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로 이해 가능하다. ⑤ ㉔ '약한 등불'은 구도자로서의 자신을 정립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으로 볼 수 있다.

## 16.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고백하고,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알았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즉 사랑이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게 됨을 의미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한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은 이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2연에 밝혀졌다. ④ 해당 내용을 통해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 17. 비판적 사고(핵심어의 비교 및 감상)

**정답해설 :** (나)의 ‘부듯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하여 그 뜻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나)의 ‘부듯가’는 배가 들어오고 그 줄이 매이는 곳으로, 이 시에서 이 과정을 통해 화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다)의 ‘수막’은 적막하고 비어 있어, 님이 떠나고 난 뒤 부재를 실감하게 되는 공간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부듯가’에서 반복되는 시련을 찾을 수 없으며, ‘수막’은 도피의 공간이 아니다. ② ‘부듯가’는 나와 사랑하는 이의 개인적 공간이지 공동체적 공간이 아니다. ‘수막’은 님이 더 이상 없는 곳으로 개인적 공간이다. ③ ‘수막’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현재적 공간이나, ‘부듯가’는 회귀하고 싶은 과거의 공간이라 볼 수 없다. ④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나, ‘부듯가’는 누군가가 누구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사랑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 18.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다)의 내용 및 주요 소재의 의미를 신하의 연군 지정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에게 드리고 싶은 화자의 마음과 그리움이지, 임금의 은혜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옷’은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지상의 화자와 천상의 ‘달, 별’은 군신 간 수직적 관계의 반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③ 신하인 화자가 ‘청광’을 보내고자 하는 대상은 ‘임금’이 맞다. ⑤ 차가운 ‘앙금’으로 신하된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9-22] 인문, ‘개념사란 무엇인가’

**지문해설 :** 이 글은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 지은 ‘역사’라는 책의 제목이 어떤 어원으로부터 나온 말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사 연구의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글이다.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쓰기 이전에는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스’처럼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종교적인 이야기가 과거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수단이었지만, 헤로도토스는 신화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직접 확인, 탐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기술하여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과거의 사건은 단순히 지난 옛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훈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화려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독자를 감동시키는데 몰두한 나머지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15세기 이후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된 이후 객관적 역사 서술의 태도는 다시 중시되었다.

**[주제]**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후대에 남긴 영향과 역사 서술에 있어서 객관적 역사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서술의 중요성

## 1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가 수사학적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 흐름이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긴 했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 글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 15세기 이후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어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헤로도토스는 과거의 사건을 직접 확인, 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는 그의 책 ‘역사’에서도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사실적으로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첫 번째 단락에서 ‘histor’가 원래 ‘목격자’, ‘증인’을 의미하는 법정 용어라 설명하고 있다. ④ 세 번째 단락을 통해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로 인식한 것은 과거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이를 통해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세 번째 단락의 앞 부분을 통해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에게 교훈을 주는데 있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20. 추론적 사고(외적 자료의 분석적 이해)

**정답해설 :**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을 강조하는 측은 역사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에게 교훈을 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설득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독자에게 감동을 주어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의 ‘폴리비오스’나 (다)의 ‘투키디데스’는 모두 설득력 있게 과거사를 전달하는 것을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우선시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필라르코스는 독자에게 동정심을 일으키고 과장된 묘사로 감동을 주려 했기 때문에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거울이 가진 성질을 왜곡이나 채색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정확성과 객관성의 관점에서 역사 서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③ 과거사가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순환 사관에 해당한다. ④ 폴리비오스나 루키아노스는 모두 정확성과 객관성의 관점에서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서술의 태도로 보았다.

## 21. 비판적 사고(비판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객관적 서술 태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기술된 것이 아니라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리아스’가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일리아스’는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므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서술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③ 트로이 전쟁을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서술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실제 확인하지 않고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서술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일리아스’를 통해 호메로스는 전쟁이 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신화적 세계관은 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함을 알 수 있다. ⑤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22. 어휘 · 어법(합성어의 구성 방식)

**정답해설 :** ‘앞세운’의 기본형은 ‘앞세우다’인데, 이는 ‘앞’이라는 부사어와 ‘세우다’라는 서술어가 결합한 형식이다. ‘남다르다’의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남과 다르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합성어인데 ‘남’이 부사어로 ‘다르다’가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멍이 들다’의 의미이므로 ‘주어 + 서술어’이다. ② ‘빛을 내다’의 의미이므로 ‘목적어 + 서술어’이다. ③ ‘힘을 쓰다’의 의미이므로 ‘목적어 + 서술어’이다. ④ ‘그늘이 지다’의 의미이므로 ‘주어 + 서술어’이다.

### [23-25] 과학, ‘식물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 과정과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식물이 토양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잎으로 전달되는 과정과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물 내부에서 물의 이동은 ‘증산-응집력-장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수분 퍼텐셜의 변화 양상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되게 된다.

**[주제]** 수분 퍼텐셜에 따른 식물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 원리

### 2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식물이 기공을 여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기공이 열리면 잎의 표피에 있는 물이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게 된다. 따라서 기공이 열리면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지만 물이 손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고 언급되어 있다. ② 4문단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④ 2문단에 기공을 통해 물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긴다고 언급되어 있다. ⑤ 2문단에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올라간다고 언급되어 있다.



## 24.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물의 이동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토양 > 뿌리 > 줄기 > 잎 > 대기 순으로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물이 토양에서 대기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뿌리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 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하게 되고(㉠),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하게 되며(㉡), 증산 작용으로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 나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잎의 수분 퍼텐셜보다 대기의 수분 퍼텐셜이 낮기 때문에 물이 잎에서 대기로 빠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은 적절하지 않다.

## 25. 추론적 사고(정보 도식화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식물은 물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게 된다. 식물은 일출부터 일몰 순간까지 기공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공이 열려 있다는 것은 식물에서 증산 작용이 일어나 물이 이동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식물에서의 물의 이동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물의 이동이 시작되는 일출 순간에 잎의 수분 퍼텐셜은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고, 일몰 순간 또한 잎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은 양상을 띠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④ 잎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높다는 것은 물의 이동이 잎에서 토양으로 거꾸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이 0이므로 잎이 물과 같은 수분 퍼텐셜을 보인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일출 순간 잎의 기공이 열리면서 식물 내부에서는 물이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일출 순간 잎의 수분 퍼텐셜과 토양의 수분 퍼텐셜이 같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26-29] 현대 소설 - 황석영, ‘가객(歌客)’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인 거지 ‘나(깨꾸쇠)’가, 온갖 시련을 겪은 후에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가객 ‘수추’의 이야기를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담담하면서도 신비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전달하고 있다. 작품은 ‘수추’가 죽은 후 ‘나’가 그를 그리워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그를 만나고 그가 죽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70년대와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이 작품은 자기 예술의 완성에만 집착하던 예술가가 어떻게 민중 예술가로 거듭나는가, 또한 독재 권력은 왜 이러한 예술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어느 날 마을을 찾아든 ‘수추’는 신묘한 노래를 부르지만 그의 추한 외모를 혐오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피해 강 건너편으로 간다. 강 건너편에서 ‘수추’는 예술의 완성에만 골몰하며 모든 것을 미워했던 뒤틀린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노래를 통해 타인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수추의 노래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며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런 ‘수추’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마을의 최고 부자 ‘장자’는 ‘수추’를 가두고 그의 혀를 잘라 버리지만, 그의 노래는 끝까지 살아남아 마을사람들 사이에 울려 퍼진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수추’의 죽음을 믿지 않으며, ‘나’ 또한 수추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주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도달하게 된 진정한 예술의 경지

### 26.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가)는 작품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관찰자의 관점에서 수추와 마을사람들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으나, (나)는 작품 외적 서술자가 수추의 내면 심리까지 직접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시점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는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다. ② 저자의 사람들이 수추의 노래를 듣고 모였다가 그의 흉한 얼굴을 보고 흠어진 것과 강 건너편에서 동물들이 그러했던 것은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는 있으나,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등을 통해 수추의 내면 변화가 표정의 변화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27. 비판적 사고(갈등의 파악)

**정답해설 :** 수추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지만 그의 흉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이후 강 건너편에서 시냇물에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며 괴로워한다. 이를 통해 (가)와, (나)의 전반부에서 수추가 그의 예술과 용모의 괴리감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환희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러한 내적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한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의 전반부에 보이는 수추의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내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④ (가)에서가 아니라 (나)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진다. ⑤ 저자 사람들과 짐승들은 수추의 노래에 매혹되어 모여든 것이므로 모여든 이유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 28.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정답해설 : ㉠, ㉡은 모두 수추가 자신의 모습을 비취 봄으로써 자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매개물이다. ㉠을 통해서는 음률을 완성한 자신의 모습이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음을 확인했고, ㉡을 통해서는 노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 자신의 환희에 찬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모두 ㉠, ㉡의 ‘시냇물’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 29.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언급한 예술가, 작품, 수용자는 제시문에서 각각 수추, 그의 노래, ‘나’를 포함한 저자 사람들에 대응한다. 그러나 제시된 부분에서 수추의 노래 속에 당대 사회의 모습이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저자를 따뜻하게 답히는 것만 같았다.’에서 ‘나’가 수추의 노래 그 자체에 자극받아 수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만 일어섰는가?~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에서 수추의 노래가 저자 사람들을 매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을 보고 ‘나’가 그의 노래가 가진 힘에 부러움과 시샘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그 추한 얼굴에 씩씩 사그라지고 말았다.’에서 저자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수추의 흉한 얼굴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수추가 음률의 완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얼굴은 환희로 빛나고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음악과 그의 용모 사이의 괴리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0-33] 예술, ‘이차 프레임의 기능’

지문해설 : 이 글은 이차 프레임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차 프레임은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로,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일컫는 말이다. 이차 프레임의 일반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이차 프레임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현대에 이룰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여러 시도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주제] 이차 프레임의 개념과 기능

## 30.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3문단에서는 이차 프레임이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기도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차 프레임 내부의 인물과 외부의 인물 사이에 일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 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는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함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차 프레임 내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③ 3문단에서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어짐을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카메라는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을 비추어 한 이야기의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의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옴을 언급하고 있다.

## 31.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는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집 <미국인들>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을 통해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인물을 이중 프레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차 프레임은 ‘문, 창, 기둥, 거울’ 등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을 행인이 들고 있는 ‘원형의 빈 액자 틀’로 바꾸게 되면 ㉡로 인한 이차 프레임은 없어지지만, ‘원형의 빈 액자 틀’로 인한 이차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는 프레임 안에 만들어진 프레임이므로, 이로 인해 화면이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화면이 평면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입체적으로 느껴진다. ② 사진 속 공간의 폐쇄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이 그 기능을 상실할 때이다. ③ ㉡로 인해 창 테두리 외부의 풍경이 아니라 내부의 인물에 시선이 유도되고 있다. 인물을 창으로 에워쌌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④ ㉡가 없다면 ㉡ 안의 인물은 작품 내 존재감이 현재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차 프레임이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3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반쯤 열린 창틈’ 역시 영화에서는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쯤 열린 창틈’은 ‘한 가족의 행복’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면 안의 직사각형 틀에서 팔과 다리가 빠져나와 있는 인물의 모습은 이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② 주인공이 속한 공간의 문이나 창이 항상 닫혀 있는 것은 문이나 창을 봉쇄하여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상실시킨 것이다. ③ 문 안에 있는 대상을 실체가 불분명한 물체의 이미지로 처리한 것은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게 것이다. ⑤ 차창을 안개로 줄곧 뿌옇게 보이게 한 것은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이차 프레임의 범례를 벗어나게 한 것이다.

### 33. 어휘 어법(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 파악)

**정답해설 :** ‘조성(造成)되다’는 주어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분위기가 정세 따위가 만들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성(形成)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결성(結成)되다’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가 짜여 만들어지다.’라는 의미이다. ② ‘구성(構成)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③ ‘변성(變成)되다’는 ‘변하여 다르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④ ‘숙성(熟成)되다’는 ‘충분히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 [34-37]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임진록’

**작품해설 :**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여 쓰인 이 작품은 당시의 국제 정세 및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서 전쟁의 발생 과정과 전쟁 중에 활약한 장수들의 활약상을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임진왜란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정신적 위안을 얻고 민족의 정기를 고취하려 하였다. 전쟁 승리의 과정을 한두 명의 영웅에 의한 승리로 그리지 않고, 수많은 의병장, 명장들을 순차적으로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애국적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싸워 나가는 것을 보여준 것은 임란 이후 각성된 민중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시된 부분은 작품의 후반부로 사명당이 왜왕을 도술의 힘으로 압도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부분이다.

**[주제]** 임진왜란의 치욕에 대한 정신적 위안 및 민족의식 고취

### 34.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한 부분은 없고,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명당과 왜왕의 갈등은 사명당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③ ‘벽력 소리 진동하며~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등에서 과장된 비유를 통해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사명당이 도술을 부리는 부분에서 전기적 요소를 통해 비현실적 장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명당과 송정의 대립은 사명당의 일방적인 징벌로 간단히 마무리되는 반면, 국외에서 벌어지는 사명당과 왜왕의 대립은 수차례 반복되면서 상대적으로 갈등과 긴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장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5. 비판적 사고(인물 간 갈등의 파악)

**정답해설 :**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는 송정의 말과 ‘네 벼슬이 비록~국법을 엄히 하라’는 사명당의 말에서 사명당은 자신이 임금의 명을 받은 사신(명분)이며, 대사마대장군(직위)이라는 점을, 송정은 자신의 신분(옥당)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하인’은 사명당이 온다는 소식을 전달했을 뿐 둘 사이의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둘의 갈등을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이 아니라 봉명 사신을 대하는 지방관으로서의 도리에 관한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있다. ④ 종교적 신념과 윤리적 신념의 충돌은 드러나지 않는다.

## 36.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명당 개인의 활약상을 보인 것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기>를 참고한 감상으로 볼 수도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역사적으로 패한 전쟁인 왜란의 수치를 왜를 철저히 응징하는 사명당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로 바꿈으로써 민중들이 받은 고통을 정신적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지방관의 도리에~화를 면치 못하리로다’는 하인의 말을 통해 어리석은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④ 압도적인 힘으로 왜왕을 수차례 굴복시키는 이야기 전개는 전란으로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설정이라 볼 수 있다.

## 37.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적용)

**정답해설 :** ㉠은 왜왕이 마지못해 항복하는 상황이므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울며 겨자 먹기’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스스로 요구하거나 알려주어 억지로 대접을 받는다는 말. ③ 아이가 울려고 할 때 뺨을 치면 울음이 크게 터진다는 뜻으로, 일이 틀어져 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충동하여 더욱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을 이르는 말. ⑤ 변변찮거나 하찮은 사람이 신분이 귀하게 되어 아니꼽게 큰소리를 친다는 말.

## [38-40] 극(희곡) - 윤대성, ‘출세기’

**지문해설 :** “나는 이 작품을 매스컴의 역기능을 주제로 하여 매스컴에 의해 조작되는 인기, 그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 그로 인해 파멸되어 가는 인간성에 초점을 맞춰 집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필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 작품은 상업주의에 물든 매스컴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1967년에 실제 발생했던 광부 매몰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무너진 갯에서 16일 동안을 견딘 끝에 극적으로 구출된 광부 김창호가 온갖 방송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 유명인사가 되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성이 떨어지자 주인공은 언론의 철저한 버림을 받고 절망한다는 줄거리를 지닌 희곡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부풀려 관심을 한껏 증폭시키다가 효용성이 상실되면 가차 없이 버리는 자본주의 속물적 생리를 적나라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제시된 장면은 극적으로 구출된 직후 어리둥절한 김창호의 모습과 심리, 이를 이용하려는 주변 인물들(홍 기자, 소장, 비서관, 주치의)의 반응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다.

[주제] 대중 매체에 의한 인간의 상품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 38. 비판적 사고(극 전개상의 특징)

**정답해설 :** 아무것도 모르는 김창호의 행동과, 그를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켜 어떤 이익을 도모하려는 주변 인물들의 행동이 대조되는 면이 있으나, 김창호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기자1, 기자2, 홍 기자, 소장, 비서관, 주치의가 모두 사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특히 홍 기자의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발화에서 ‘사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에서, 인명이 구조 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과 대비되는 구경꾼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10. 사무소와 갯내’에서 ‘사무소’와 ‘갯내’라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 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9. 현장’에서 홍 기자의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와, 비서관의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등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를 확인할 수 있다. ‘10. 사무소와 갯내’의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에서 ‘작위적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황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 관객이 극중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바짝 조였던 정신이 풀려 늦추어짐.)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9. 추론적 사고(등장인물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9. 현장’의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에서 ‘현장에 등장하면서 비서관이 언론을 의식’하는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9. 현장’의 다섯 번째 홍 기자의 대사인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와, ‘14. 가지 회견 석상’의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바입니다.’ 등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9. 현장’에서 홍 기자의 인터뷰에 망설임 없이 응하는 장면을 고려하면, 소장은 취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재 활동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9. 현장’의 기자1, 기자2, 홍 기자 모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14. 기자 회견 석상’에서 주치의는 김창호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40.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은 갇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김창호가 매몰된 갯에서 구조된 이후를 뜻하고, ㉡의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라는 주치의의 인식이 담긴 대사는, 주인공이 앞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에는 주인공이 ㉠을 계기로 ㉢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는 자신이 구출될 것이라는 비서관의 말에 대한 단순한 감사의 인사일 뿐이다. 즉 주인공은 ㉠에 대해서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를 확신하는 주인공의 기대’는 적절하지 않다. ③ ㉤은 구출된 직후에, 주인공이 괴로운 상황을 견디는 장면이므로 ‘주人公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주인공이 왜 인터뷰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에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주인공이 영문도 모른 채 주인공이 억지로 국민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에 ‘㉠을 계기로 ㉢에 이르고자 하는 주인공의 집념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41-43] 언어, ‘국어의 2인칭 대명사’

**지문해설 :** 이 글은 국어의 2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즉,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등과 같은 2인칭 대명사의 쓰임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아주 높임의 대상자에게는 2인칭 대명사 대신 존대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경우가 있으며,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이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국어의 2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

### 4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에는 ‘너’, ‘너희’, ‘자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에서 예사 낮춤 말인 ‘자네’가 ‘너’보다 상대를 높이는 말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에 높임의 등급 구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위 글에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킬 때 사용하는 대명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대명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1인칭 대명사이다. ②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에게 ‘임자’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에 따라 2인칭 대명사의 쓰임이 달라짐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 중 ‘너희’는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 곧 2인칭 복수를 지칭할 때 사용함을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2인칭 대명사는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에 사용한다. <보기>는 ‘한 상무’와 ‘김 부장’의 대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은 ‘김 부장’의 말을 듣고 있는 ‘한 상무’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는 말하는 이인 ‘한 상무’와 듣는 이인 ‘김 부장’ 이외의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는 말하는 이인 ‘한 상무’ 자신과 듣는 이인 ‘김 부장’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1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④ ㉣는 ‘고모’와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는 말하는 이인 ‘고모’와 듣는 이인 ‘한 상무’의 대화에서 언급한 제3의 인물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4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과 ㉡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칭을 나타내고 있다. ㉡의 ‘자기’ 역시 2인칭과 3인칭으로 쓰이고 있다. 즉, ㉡의 앞 문장에서 ‘자기’는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뒤 문장에서 ‘자기’는 ‘학생’을 가리키는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너’는 모두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③ ‘자네’는 모두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④ 앞 문장에서 ‘그대’는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뒤 문장에서 ‘그대’는 상대방을 친근하게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⑤ ‘여러분’은 모두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

다.

**[44-46] 기술, ‘디스크 스케줄링의 네 가지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처리하는 네 가지 디스크 스케줄링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FCFS 스케줄링은 입출력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SSTF 스케줄링은 헤드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트랙에 있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SCAN 스케줄링은 디스크의 양쪽 끝을 오가는 헤드의 이동 경로 순서대로, LOOK 스케줄링은 요청된 트랙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를 헤드가 이동하면서 그 경로에 있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주제]** 디스크 스케줄링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 순서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하드 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해 놓고 헤드를 통해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섹터의 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 디스크에 일정한 수의 섹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탐색 시간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므로 헤드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③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4개의 디스크 스케줄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디스크 스케줄링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대기 시간은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므로 대기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 접근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가)는 헤드가 ‘53 → 37 → 14 → 98 → 122 → 183’ 순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는 SSTF 스케줄링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53 → 98 → 122 → 183 → 37 → 14’ 순서로 헤드가 양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그 경로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헤드가 트랙의 끝인 199까지 가지 않고 요청된 트랙의 최댓값인 183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나)는 LOOK 스케줄링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46. 추론적 사고(추론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탐색 시간은 헤드의 이동 거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각 스케줄링에서 헤드의 이동 거리를 계산해 비교해 보면 ①의 판단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인 ‘200, 100, 50, 25’라고 가정해 보자. SSTF



##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스케줄링은 헤드의 위치와 가까운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LOOK 스케줄링은 현재의 헤드 위치인 0에서 최댓값인 200으로 이동하는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두 스케줄링 방식에서 소요되는 헤드의 이동 거리 즉,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므로, FCFS 스케줄링은 요청이 들어온 순서인 '0 → 200 → 100 → 50 → 25'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SSTF 스케줄링은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FCFS 스케줄링이 SSTF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보다 크다. ③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므로, FCFS 스케줄링은 요청이 들어온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LOOK 스케줄링 또한 트랙의 최댓값인 200으로 가는 헤드의 이동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FCFS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④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므로, FCFS 스케줄링은 요청이 들어온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SCAN 스케줄링 또한 헤드가 가장 바깥으로 이동하는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FCFS 스케줄링과 SCAN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⑤ 트랙 번호의 끝이 200이라고 할 때, SCAN 스케줄링은 헤드의 이동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LOOK 스케줄링 또한 최댓값인 200번 트랙으로 가는 이동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SCAN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 [47-50] 사회, '대의 민주주의의 딜레마'

**지문해설 :** 이 글은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에 누구의 의사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글이다. '명령적 위임 방식'이란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자유 위임 방식'이란, 국회의원이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한 입법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국민은 국회의원 선출권을 통해 국회의원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기도 하지만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주제]** '명령적 위임 방식'과 '자유 위임 방식'의 장점과 단점과 이에 대한 보완 방

안

## 47. 사실적 사고(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해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의 관계에 대해 ‘명령적 위임 방식’과 ‘자유 위임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견해가 시간적 순서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명령적 위임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역으로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단점과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두 견해는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⑤ 두 견해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소개하고 있을 뿐 어느 특정 견해를 지지하거나 특정 견해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글이 아니다.

## 4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상황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될 경우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법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유 위임 방식’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지역구 주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는 것이 명령적 위임 방식이다. ②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명령적 위임 방식이다. 기권 하는 것 역시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선거 공약에 따라 지역구 주민의 의사로 당선이 되었지만, 이후의 활동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유 위임 방식에 해당한다. ④ 소속 정당의 당론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자유 위임 방식이다.

## 49.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하는 ‘자유 위임 방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직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유 위임 방식 아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②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다. ③ 명령적 위임 방식을 도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즉 국민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 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점이 국민이 직접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⑤ 자유 위임 방식에서 국민과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대표자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0. 어휘 · 어법(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근거를 찾으면’에서의 ‘찾으면’은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실마리를 찾다’의 ‘찾다’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원상태를 회복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잃거나 빼앗기거나 맡기거나 빌려 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 또는 그것을 얻거나 그 사람을 만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어떤 것을 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